

# 담화 내의 ‘역접 관계’ 고찰

김 호 정(서울대 대학원)

## 차 례

- I. 서론
- II. ‘역접 관계’의 정의와 표현 의도(purport)
  - 1. ‘역접 관계’의 정의
  - 2. 표현 의도(purport)
- III. 역접의 관계대상(relata)
- IV. 역접 관계의 표현 형식
- V. 결론

## I. 서론

발신자가 적절한 언어형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심리내용, 즉 자신이 선택한 의미를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를 담화<sup>1)</sup>라고 한다. 담화는 말미연접이나 종지부로 끝나는, 하나의 통각작용을 표현하는 형식인 적격문(文)<sup>2)</sup>을 최소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이용주, 1993: 57). 담화를 구성하는 둘 이상의 적격문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유의미한 관계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은 문장간의 결합 양상만을 밝히고 있어, 문(文)들간의 관계 선택에

1) 담화는 음성으로 실체화되는 경우 녹음으로 기록될 수 있고 문자로 실체화되는 경우는 문자표기로 남는다.

2) 문(文)과 문장은 구별된다. 문(文)은 문장의 최소단위이므로 문(文) 또한 담화행위에서 음성이나 문자로 실체화된 것이면 문장이다.

있어서의 발신자의 표현 태도 혹은 의도나 그에 따른 언어 형식의 선택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둘 이상의 적격문으로 구성된 담화에서 발신자가 선택하는 관계 표현의 의도와 언어 형식을 밝히고자 한다. 담화를 구성하는 적격문의 관계는 관계 대상을 긍정하고 순차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관계, 대상을 부정하고 대립하여 의미의 전환을 이루는 관계와 태도를 유보한 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관계가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에서 관계 대상과 대립하여 의미의 전환을 도모하는 ‘역접 관계’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담화에서 ‘역접 관계’를 정의하고, 발신자의 심적태도는 무엇이며, 언어 형식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고찰은 부정적인(negative) 결속(coherence) 관계(relations) 표현이라는 한국어의 사용 원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 II. ‘역접 관계’의 정의와 표현 의도(purport)

### 1. ‘역접 관계’의 정의

먼저 ‘역접 관계’는 ‘대립적이고 부정적인(negative)’ 결속 관계(coherence relations)로 정의할 수 있겠다. 논리학에서 ‘대립’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된다(Webster’s New Dictionary of Synonyms, 1980).

- 1) ① 모순 개념(contradictory concept)을 가진 두 의미는 대립적이다.
- ② 반대 개념(contrary concept)을 가진 두 의미는 대립적이다.
- ③ 상관 개념(correlative concept)을 가진 두 의미는 대립적이다.
- ④ 인과 개념(causal concept)을 가진 두 의미는 대립적이다.
- ⑤ 역개념(reverse concept)을 가진 두 의미는 대립적이다.
- ⑥ 선언 개념(disjunctive concept)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들은 대립적이다.

이처럼 반대되거나 모순되거나 하는 것은 물론 부정하는 것까지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의식되므로 이들 모두를 일괄하여 대립적인 관계라 일컫는다. 역접 관계는 이와 같은 개념의 대립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관계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negative)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부정적인 의식은 정도 혹은 양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모든 부정 작용은 부정 대상에 대한 긍정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때 그러한 부정의 가치는 어떠한 형태의 다른 긍정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긍정보다 강조의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담화 내에서 역접 관계로 정의될 수 있는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담화는 담화를 생산해 내는 발신자가 1인(人)일 때와 2인(人) 이상일 때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 때 생산된 담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perspective)<sup>3)</sup>은 일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발신자가 1인일 때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①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 ②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 ③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 ④ 그 사람은 가난하다. 하지만 행복하다

'그 사람은 가난하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란 두 개의 적격문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발신자의 심적태도가 드러난다. ①부터 ④는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발신자의 태도는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④와 ②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④는 '가난해서 불행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전제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된 사실', 혹은 '예상'을 부정하는 관계를 '역접 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①은 일단 역접 관계로 보기가 어렵다. 두 개의 문(文)만으로는

3) 이에 대해서는 2장 2절 참조.

발신자의 표현 의도를 알 수가 없고, 특히 ‘가난’과 ‘행복’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보자.

- 3) ① 형은 키가 크다. 동생은 키가 작다.
- ② 형은 키가 크다. 하지만 동생은 키가 작다.

②는 분명히 역접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역접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 물론 ①도 ②처럼 ‘같은 형제간이기 때문에 형이 키가 크다면 동생도 키가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예상이 어긋났다’는 발신자의 심적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문(文)만으로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간의 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가능하다. 그러나 ①에서 발신자의 이러한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하에 다른 문(文)들이 연결되어 의미의 대립, 혹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맥락에서는 충분히 역접 관계로 판단할 수 있겠다.

다음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화의 경우이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화는 흔히 대화나 토의, 토론과 같이 음성 언어로 실현된다. 이러한 담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역접 관계는 부정어들이 사용된 경우이다.

- 4) ① 갑: 네가 그랬지?  
을: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 ② 갑: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을: 아니요. 현재로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 ①②에서 을이 사용하고 있는 부정어들은 모두 갑의 표현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특히 위와 같은 부정 대답어들은 앞선 발화의 표현 형식과는 관계 없이 표현 의도에 따라서 선택되는데 그 표현 의도를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성 언어로 실현된 담화에서 위

와 같은 적격문의 구성 관계는 역접 관계로 규정한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① 갑: 이 닦았니?  
을: 아니요. 안 닦았어요.  
② 갑: 이 안 닦았니?  
을: 아니에요. 닦았어요.

위의 질문은 '이를 닦았는지, 닦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지만 분명히 ①의 질문과 ②의 질문에는 차이점이 있다. ①과 ②의 질문은 각각 전제된 사실이 달라, ②의 경우에는 을이 이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①과 ②의 질문에 대한 각각의 을의 대답에서 부정 대답어는 이와 같은 질문의 전제 혹은 가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제 혹은 가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접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부정 대답어의 선택은 영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명확해진다.

- 5) ③ A: Did you brush your teeth? / Did'nt you brush your teeth?  
B: Yes. I did. / No. I didn't.

5)③의 예문처럼 영어의 경우에는, A의 가정이나 의향과는 상관 없이 B의 응답 내용의 긍정 혹은 부정 여하에 따라 'yes'나 'no'를 쓰는 통사적 규정을 볼 수 있다. 이 때 'no'는 앞선 발화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 발화의 전제 혹은 가정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 어휘들이 생략된 경우에도 역접 관계는 성립한다.

- 6) 갑: 치우고 나니까 깨끗하지?  
을: 아직도 더럽다.

6)에서 을은 어떠한 부정 어휘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깨끗하지?'란

을의 물음에 ‘더럽다’란 대립 어휘를 사용하여 갑의 발화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 관계 역시 역접 관계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역접 관계에서 ‘대립’과 ‘부정’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 2. 표현 의도(purport)

역접 관계에서 관계대상(relata)<sup>4)</sup>간의 ‘대립’은 의미의 전환을 의도한다. 이 때 관계대상간의 대립은 발화의 내용 혹은 관점에서이다.

- 7) ① 이 옷감은 색깔은 좋지만 질감이 좋지 않아서 사지 않았다.
- ②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1월중 수출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적자가 난 것은 수출 및 내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 때문이지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2월의 경우 설 연휴가 큰 영향을 미쳤고, 월말에 수출이 불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흑자로 돌아서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흑자목표가 1백20억 달러인 데다 고유가 및 환율불안을 감안하면 올해 국제수지는 두고두고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제유가동향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올 들어 무역적자 18억 달러 가운데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적자요인이 17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가워 그 영향은 폭발적이다.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비가 절실하다. [중략] 경제의 안정은 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 강조나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정치적·정략적 노력에서가 아니라 이들 불안요인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제거·차단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2000.2.18)

7)의 ①은 ‘색깔’과 ‘질감’, ‘좋다’와 ‘좋지 않다’가 대립되면서 ‘옷감의 색깔이 좋다’ 그레도 ‘사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의미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②는 ‘그러나’ 이후에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앞선 내용과 대

4) 담화에서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대상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립된다. 이러한 의미의 전환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제거·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계대상간의 대립은 '관점'의 대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점의 대립은 변화된 관점에서의 의미의 전환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관점(perspective)의 변화'란 '수신자가 이해하는 담화 세계의 시간(time), 공간(space), 그리고 발화자(person)의 배치(localization) 변화(shifting)'를 뜻한다(Mushin, 2000).

- 8) ① 원화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아직도 외환보유액에 비해 51%에 불과하고 늘어난 단기외채의 상당부분이 무역신용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대수롭지않게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기외채를 포함하여 국제수지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지고 있는 측면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0.2.21)
- ② 금감원은 불법 대출된 637억 가운데 143억 원의 행방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현준 씨는 4백억 원이 다시 이경자 회장에게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액 대출금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합니다. (KBS 뉴스, 2000.10.25)
- ③ 사실 여야 각 정당이 공천기준을 제시하면서 밀실공천 배제니, 투명 공천이니 할 때 국민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전된 과정과 후보엄선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2000.2.16)

8)의 '그러나'처럼 앞선 대상 의미에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negative) 언어 형식들<sup>5)</sup>은 논증적인 텍스트에서 관점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①은 '원화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단기외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②는 '불법 대출금의 행방'에 대한 '금감원'의 주장과 '정현준 씨'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③

5)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들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은 '시간(space) 배치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와 관점의 변화를 의도하는 부정적인 언어 형식들은 표현 의도의 초점을 명시한다.

- 9) ① 수영장 물은 깨끗하다. 그런데 코치가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 ② 수영장 물은 깨끗하다. 그런데 코치가 친절하지 않다. 그래도 그곳을 선택하기로 했다.

9)에서 '그런데'란 부정적인 언어 형식은 발신자의 표현 의도가 '코치가 친절하지 않다'란 점에 있음을 명시해 준다. 그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화 내용은 앞선 이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②처럼 '그곳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발화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면 앞선 발화 내용을 다시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영장 물이 깨끗하다'는 장점보다는 '코치가 친절하지 않다'는 단점에 표현 의도의 초점이 놓여 있으므로 '그곳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래도'처럼 단점에 개의치 않음을 나타내는 언어 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들은 표현 의도의 초점을 명시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역접 관계 표현은 발신자가 속한 집단 혹은 개인의 문화 내에 전제된 담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전제된 담화 의미는 물리적인 개념과 인식론적(epistemic) 개념이 연결 고리가 되어 예상되는 결과이다. 물리적인 개념에서 관련대상(relata)은 실제 세계 상황(real world situation)(H. Pander Matt, 1998)이다.

- 10) ① 비가 왔지만 도로는 젖지 않았다.
- ②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10)에서 ①은 '비를 맞으면 젖는다', ②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은 인과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 개념에서 비롯한 것

이다. 즉 물리적인 개념에서 볼 때 예상되는 결과가 부정됨으로써 '젓지 않았다', '배가 부르지 않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서 인식론적 개념은 개개의 명제적(propositional)이고 추론적인(inferential) 특질을 서술하도록 한다(H. Pander Matt, 1998).

11) 그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도 성을 바꾸지 않았다.

11)의 예문은 '여자는 결혼을 하면 성을 바꾼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발화자 혹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그 여자'의 문화권 내에서만 인정된다. 결혼을 해도 성을 바꾸지 않는 다른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발화 내용을 듣고 '왜 바뀌어야 하지?'라고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문장이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접 관계 표현은 관계대상이 되는 의미 내용 이외에도 발신자가 속한 집단 혹은 개인의 문화 내에 전제된 담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접 관계로 정의될 수 있는 관계 표현들을 검토하고, 표현의 의도를 살펴 보았다. 다음 3장에서는 역접 관계를 구성하는 관계대상(relata)을 정의해 보겠다.

### Ⅲ. 역접의 관계대상(relata)

1장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담화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하나의 통각작용을 표현하는 형식인 적격문(文)이다. 둘 이상의 적격문은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다. 유의미한 관계 중 하나인 역접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대상 역시 적격문을 최소 단위로 한다. 즉 각각 하나의 적격문 혹은 그 계기적인 연쇄가 관계 대상이 된다.

- 12) ① 봄은 왔지만 꽃은 피지 않았다.  
② 학교측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쪽  
  눈 실명을 ‘학생 교육에 지장’ 운운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설득  
  력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2000.2.17)  
③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을 감수한다  
  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준법활동을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0.2.16)

12)는 접속사의 사용 없이 적절한 접미사를 첨가하여 역접 관계를 표  
현하고 있는데, ①은 각각 하나의 적격문을, ②와 ③은 적격문의 계기적  
인 연쇄를 그 관계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화에서는 적격문 이외에 ‘문장’이란 보다 큰 단위를 구별하여 사용  
하는데, ‘발신자가 만든 언어형식이 음성이나 문자로 실체화 된 것’을 뜻  
한다(이용주, 1993:57-61). 담화층의 범위 안에서 ‘문장’을 분석하여 마지  
막으로 도달하는 것이 ‘적격문’이다. 즉 ‘적격문’은 통사론적 단위이고  
‘문장’은 담화 단위이다. 따라서 각각 하나의 문장 혹은 그 계기적인 연  
쇄가 관계대상이 된다.

- 13) ① a[시민단체는 ‘판관(判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b[그 판관은  
  모든 것을 재단하는 판관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개진  
  과 촉구 등을 하는 정도의 판관이라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  
  보 사설, 2000.2.16)  
② a[충선시민연대가 불법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합법 공간을 가능한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  
  다.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을 감  
  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  
  만 어떻게 준법활동을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  
  민연대가 낙선-낙선 운동과 함께 현행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  
  을 선언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  
  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b가 동기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외의 파장과 혼선이 빚어졌다. 낙천자 명단이 공정치 못하다느니, 부정확한 자료에 따라 선정했다느니, 그리고 자민련과의 충돌과정에서는 이른바 '음모론' 공방까지 일어났다.] (조선일보 사설, 2000.2.16)

13)은 '그러나'란 접속사를 통해서 a와 b란 관계 대상의 의미 대립을 띄하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그러나'란 접속사처럼 대상들간의 역접 관계가 성립될 때 그 관계를 표현해 주는 언어 형식들이 있다. 다음 4장에서는 그와 같은 언어 형식들을 살펴보겠다.

#### IV. 역접 관계의 표현 형식

둘 이상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언어 형식인 '접속사'와 '연결 어미'가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접속사로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sup>6)</sup> 등'이 있다.

14) ① 우여곡절 끝에 16대 총선 게임의 룰이 정해졌다. 1년2개월여를 끌어오다 8일 밤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계법은 그러나 많은 손질이 불가피한 얼치기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26석 줄이고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선거법이나 정당법 개정안 등의 일부 내용은 진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점과 불합리·반개혁 투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중앙일보, 2000.2.10)

② 사실 아직까지도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게 없다. 그렇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서 소비자들은 의구심을

---

6) 이 접속사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이끌 때 쓰기도 하지만,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기도 한다.

갈게 마련이다. (동아일보, 2000.2.1)

- ③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87조 이외에 선거 운동방법 등에 관한 것까지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꼭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동아일보, 2000.2.1)
- ④ 한나라당이 대통령 아들의 호화주택 거주를 문제삼으려면 선불리의 의혹부터 제기할 게 아니라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 증거가 있는지 여부부터 알아보는 순서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우선 '폭로'부터 해놓고 현장답사를 간 것도 앞뒤가 뒤바뀐 데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야당을 아끼는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족하다. (조선일보, 2000. 2.19)

연결 어미는 '-지만, -나, -는데, -어도, -만 등'이 대표적이다.

- 15) ① 이번 태풍으로 충남지역에서만 농경지 2천3백여 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지만 오늘까지의 복구율은 43%에 그쳐 농촌일손 부족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2000.9.3)
- ②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교육부는 정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부족 사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해당 대학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대학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부 탓도 크다. (중앙일보, 2000.2.)
- ③ 이 기관사는 술을 마셨는데 운행 전 신체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2000.11.1)
- ④ 농민들은 보상을 해 준다 해도 1년 동안 정성을 쏟아 부은 벼를 못쓰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울상입니다. (KBS 뉴스, 2000.10.25)
- 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요즘 눈 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애써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지만 아직도 내 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KBS 뉴스, 2000.9.14)

또한 '병렬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라'가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아

나라'의 형식으로 대립되는 의미 내용을 병렬시키면서 대상간의 역접 관계를 도모하기도 한다.

- 15) ⑥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적 모습'은 어떤 교육제  
 도나 교육이론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이, 교사, 부  
 모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자주권의 영역  
 입니다. (조합원 토론 자료)

'무엇에 얽매어 거리끼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갖는 '불구하다'란 어휘  
 와 종종 함께 쓰여 역접 관계를 도모하는 '어미와 조사', '조사와 조사'의  
 결합 형식도 있다. 어미 '-ㄴ데/는데/은데'나 조사 '에' 뒤에 보조조사 '도'  
 가 붙은 형태 아래에 '불구하고'가 결합하거나 생략된 형식이다.

- 16) ① 최근 들어 총선을 앞둔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  
 여당은 전면 부인하거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  
 해 왔는데도 농림부의 경우 급기야 홍보책자 배포건으로 장관이  
 선관위 경고까지 받았으니 딱한 노릇이다. (중앙일보, 2000.2.8)
- ② 우리는 이미 한나라당의 공천 내용이 구시대 정치인들을 배제하  
 는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1인  
 체제 구축에 집착해 결과적으로 '회창당(會昌黨) 만들기'가 됐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 2.21)
- ③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은 벤처기업 수가 1천 개, 대만은 1천2백  
 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이스라엘 벤처 기업 수는 80개가 넘는다. (중앙일보, 2000.1.26)

'반면' 역시 '-ㄴ/는/은 반면(에)', '반면(에)'의 꼴로 쓰여 뒤에 오는 내  
 용과 상반됨을 나타낸다.

- 17) 무역수지는 지난 1월 4억 달러 적자에 이어 2월 들어서도 15일까지  
 무려 13억9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 여행수지도 1월 들어 적자로

돌아섰고, 환율하락과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는 국제유가로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경기회복과 일부 과소비를 타고 수입은 폭증추세다. 주식시장은 널뛰기 장세에 단기 유동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증시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길을 막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2000.2.18)

이들 외에, 부정어가 역접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부정어가 사용된 부정문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김동석, 1990:454).

- 18) ① 명시적 부정소가 쓰이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류
  - a. 장·단형 부정문
  - b. 접두부정어가 쓰인 문장
  - c. 부정 대답어가 쓰인 문장
- ② 명시적 부정소가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가 없는 류
  - a. 확인문, 회의문 등
  - b. 화용적 맥락에 의해 비부정으로 인식되는 문장
  - c. 이중 부정문
  - d. 부정소가 단순 부사로 인식되는 문장
- ③ 명시적 부정소가 안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류
  - a. '없다, 모른다, 말다' 등 본유적 부정어들이 쓰인 문장
  - b. '반대하다, 거부하다' 등 반의, 상대어가 쓰인 문장
  - c. 화용적 맥락에 의해 부정으로 해석되는 문장

그러나 부정어들이 항상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범주에서 부정의 형식을 갖고 있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없는 ②의 범주는 제외된다. ①과 ③에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들은 사용된 담화에서 관계 대상을 부정할 경우에만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정 대답어의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항상 관계 대상을 부정하고 있어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으로 볼 수 있다.

19) A: 너, 혹시 냉장고에 있던 빵 안 먹었니?

B: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A: 정말 안 먹었니?

B: 네. 정말 안 먹었어요.

19)A의 첫 번째 물음에서 '안 먹었니?'는 부정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발화자의 의도에서 볼 때는 부정의 의미가 없다. 즉, '먹었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때문에 B발화자는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데 '아니요'란 부정 대답어를 사용한 것이다. A의 두 번째 물음은 첫 번째 물음과 같은 형식인 '안 먹었니?'로 부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때는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먹었다'를 부정하면서 '먹지 않았다'는 앞선 B의 발화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똑같은 형식의 물음에 대해 똑같이 '안 먹었다'고 서술하는 B의 대답에서 '아니요'란 부정 대답어와 '네'란 긍정 대답어가 쓰인 것이다. 이것은 물음의 형식보다는 그 물음의 의도 즉 함축 의미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의 대답을 달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때 '아니요'란 부정 대답어는 '먹었다' 혹은 '먹지 않았다'고 하는 서술의 긍정이나 부정과 관계 없이, 앞선 발화와 대립하여 부정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사용되는 언어 형식이라고 하겠다. 즉, 18)에서 '안 먹었니?'란 부정 형식의 물음은 첫 번째의 경우 '먹었다'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 두 번째의 경우는 앞선 B의 '먹지 않았다'는 발화를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긍정하고 있는 발화 태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두 번째의 경우는 부정문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대상을 부정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부정의 언어 형식은 본유적으로 긍정을 전제하면서 그 긍정과 대립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데, 둘 이상의 적격문의 유의미한 관계로 구성되는 담화 내에서 관계대상과 대립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다.

- 20) 27일 중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치권은 정치발전 측면에서 인구 편차 감축 노력과 함께 재협상 중인 나머지 정치개혁 법안을 기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지역구 감축분을 전국구로 돌리려는 알

은 꺾나 부러서는 안 된다. 1인 보스 정치의 병폐가 심각한 마당에 보스에게 힘을 더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여당은 1인2표제 및 석패율 등에 집착할 게 아니다. 2여의 연합공천을 다분히 의식한 산물인 만큼 공연히 국민만 헛갈리게 하는 이 제도를 고집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선거법 제87조 개정 내지 폐지를 전진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치개혁에 기여할 방안 마련에 진력하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2000.1.27)

20) 예문에서도 ‘안 된다’, ‘안 될 일’, ‘아니다’, ‘없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 표현들은 본유적으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선 관계대상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20)의 각 문장들은 앞선 관계대상의 의미를 긍정하면서 20) 단락의 주제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 ‘아니다’와 ‘명시적 부정소가 안 쓰였으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류’에 속하는 반의 혹은 상대어인 ‘어렵다’는 관계대상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어 역접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21) a[호남지역의 경우, 말과 실제의 차이는 더욱 드러난다. 기존 지역구가 8개나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당초 60% 정도 ‘바뀌 바뀌’를 외치던 수준의 절반에 머물고 만 것이다.] b[물론 산술적으로 많이 바뀌 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공천혁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c[그러나 이번 공천결과는 그 산술적 측면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결코 ‘개혁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일보 사설, 2000.2.18)

21)에서 b는 관계대상 a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는 다시 관계대상 b와 대립되는 서술을 함으로써 b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의 발신자는 a를 뒷받침하면서 c의 주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a를 부정하고 있는 b를 다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언어 형식들은 사용된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서 관

계대상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 형식들 외에 '대조'의 의미를 갖는 '조사'나 다른 류의 '부사'도 관계대상을 부정하는 발신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 '은/는'이 있다. 22)예문 b의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에서 보조사 '은'은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앞선 관계대상 a와도 부분적으로 대립되고, 이어지는 c와도 대립됨을 표현해 준다. 즉 부정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 '아니다'와 함께 관계대상 간에 역접 관계가 성립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 22) ① 4월 총선이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등 여러 사유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예견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 폭과 시기가 예상 밖이다. (매일경제 사설, 2000.2.22)
- ② 우리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최선이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획정위 안을 받아들여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1.31)
- ③ 사과가 색깔은 좋다. 맛은 없다.

22)①과 ②에서도 밑줄 친 '..는 아니지만'과 '...는 않지만'은 관계 대상이 역접 관계임을 표현해 주는 언어 형식인데, 보조사 '는'은 대상간의 의미 대립을 명시하려는 발신자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③의 경우에도 본유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없다'가 관계대상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맛도 좋을 것이다'란 함축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역접 관계를 이루는데, 보조사 '는'을 통해서도 관계대상 간의 의미 대립을 꾀하려는 발신자의 심적 태도를 알 수가 있다.

또한 '대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는' 외에도 21)예문에서 볼 수 있는 '물론'이나 '결코'와 같은 부사도 관계 대상을 부정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해 준다. '물론 ....은 아니다', '결코 .... 찾아보기 어렵다'와 같이 공기 관계를 이루면서 관계대상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어휘와 공기하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다.

그러나 보조사나 몇몇의 부사류들만으로는 역접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들 언어 형식은 앞에서 언급한 접속부사나 어미 또는 부정 표현의 언어 형식들과 함께 관계대상에 대한 발신자의 부정적인 심적 태도를 표현한다. 즉 발신자의 표현 의도는 보조사나 부사와 같은 언어 형식을 통해서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만’과 같은 부사 형식을 볼 수가 있다. ‘다만’은 대상간의 완전 대립보다는 부분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앞에 서술된 일반적인 원칙이나 사실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문두(文頭)에 쓰는 어휘’로서 ‘다만’은 앞선 대상의 함축 의미를 부정하고 부분적인 대립 관계를 유지한다.

- 23) 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 다만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  
 ② 이제는 퇴원해도 좋다. 다만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③ 네 소원이라면 뭐든 들어 주겠다. 다만 공부만은 열심히 해 다오.

23)①에서 ‘다만’ 앞에 서술된 내용은 ‘모든 단어들은 띄어 쓴다’는 원칙을 함축 의미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후의 내용은 이러한 함축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②의 경우도 앞선 관계대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함축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격한 운동은 아직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둠으로써 이와 같은 함축 의미와 대립하고 있다. ③ 역시 앞의 서술에 대해 예외적인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소원이라면 뭐든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관계대상이 되는 뒤의 서술이 앞의 서술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강한 함축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대립하는 역접 관계를 ‘부분 인증(qualification)’ 관계라고 하겠다. ‘단순한 부분 인증’ 구조는 ‘A, 그러나 A-에 한해서만 그렇다’인데, 이 때 ‘A-’는 ‘A’에 대해서 보다 약한 견해(weaker version)임을 나타낸다. 또한 부분 인증 관계에는 ‘예외 관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A지만, 몇몇 경우에/몇 가지 면에서 A가 아니다’와 같은

의미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다음 ④ 예문에서 '다만'은 단순한 부분 인정 관계를 보이는 역접 관계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 23) ④ 피고인에게 검찰 기록의 열람·동사를 허용한 증거개시제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다. 검찰이 주도권을 행사해온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접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형식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 중에서 접속사와 어미를 비롯한 몇몇 형식들은 역접 관계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그 외의 형식들은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겠다.

## V. 결론

담화를 구성하는 적격문의 결합 관계를 역접 관계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역접 관계'는 '대립적이고 부정적인(negative) 결속 관계(coherence relations)'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담화 내에서 역접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담화 생산자인 발신자의 수에 따라 설명되었다.

관계대상(relata)간의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결속 관계는 먼저 대상간의 의미 전환을 피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표현의도(purport)가 실체화된 것이다. 관계대상 간의 대립은 '관점(perspective)'의 대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관점의 대립'은 곧 '관점의 변화'를 뜻한다. 이 때 관점의 변화란 '수신자가 이해하는 담화 세계의 시간(time)과 공간(space) 그리고 발화자(person)의 배치(localization) 변화(shifting)'를 의미한다. 대상의 의미와 관점의 변화를 의도하는 부정적인(negative) 언어 형식들은 표현의도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역접 관계로 표현된 담화가 함축하고 있는 전제 의미는 물리적인 개념이나 인식론적(epistemic) 개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역접 관계에서 관계대상(relata)의 단위는 담화 구성의 최소 단위인 적격문이 된다. 즉 각각 하나의 적격문 혹은 그 계기적인 연쇄가 관계 대상이 된다. 또 하나의 적격문 혹은 그 계기적인 연쇄로 구성되는 보다 큰 단위인 '문장'을 관계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역시 각각 하나의 문장 혹은 그 계기적인 연쇄가 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은 역접 관계를 표현해 주는 언어 형식으로는 접속사와 연결 어미가 대표적이다. 먼저 접속사로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등'이 있고, 연결 어미로는 '-지만, -나, -는데, -어도, -만 등'이 있다. 또 '병렬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라'가 '아니다'의 어간에 붙은 '아니라'의 형식이 있고, '불구하다'란 어휘와 종종 함께 쓰여 역접 관계를 도모하는 '어미와 조사'의 결합 형식인 '-는데/는데/은데 (불구하고)'나 조사 '에' 뒤에 보조사 '도'가 붙은 '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있다. 이 외에 '(-ㄴ/는/은) 반면(에)' 형식이 있고, 일부의 부정어들이나 '대조'의 의미를 갖는 조사, 일부의 부사류가 역접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담화 내의 역접 관계 표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인식론적 개념에서 성립되는 역접 관계는 발신자가 속한 집단 혹은 개인의 문화 내에 전제된 담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사용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은 부정적인 결속 관계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사용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동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1』, 삼지원.
- Beugrande, R. de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김태옥·이현호 공역(1991), 『담화·텍스트 언어학입문』, 양영각.
- Mushin, Ilana(2000), “Evidentiality and deixis in narrative retelling”, *Journal of Pragmatics* 32.
- Pander Matt, Henk(1998), “Classifying negative coherence relations on the basis of linguistic evidence”, *Journal of Pragmatics* 30.
- Stubbs, M., *Discourse Analysis*, 송영주 역(1993),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van Dijk, T. A.(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linare Einfuhrung*, 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 Webster's New Dictionary of Synonyms(1980).

<초록>

## 담화 내의 '역접 관계' 고찰

김 호 정

본고는 담화를 구성하는 적격문의 결합 관계에서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결속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역접 관계'를 정의하고, 그 중 가장 핵심 개념인 '대립'과 '부정'의 의미와 발신자의 표현 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역접 관계'에서 '관계대상'을 규정한 뒤 그 단위들을 알아보고, '관계 형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관계대상(relata)간의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결속 관계는 먼저 대상간의 의미 전환을 피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표현의도(purport)가 실체화된 것이다. 관계대상 간의 대립은 '관점(perspective)'의 대립, 곧 '관점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상의 의미와 관점의 변화를 의도하는 부정적인(negative) 언어 형식들은 표현 의도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역접 관계에서 관계대상(relata)은 담화 구성의 최소 단위인 적격문과 보다 큰 단위인 '문장'을 단위로 한다. 각각 하나의 적격문이나 문장, 또는 그 계기적인 연쇄가 관계대상이 된다. 역접 관계를 표현해 주는 언어 형식으로는 접속사와 연결 어미가 대표적인데, '어미와 조사', '조사와 조사'의 결합 형식도 있다. 이 외에 일부의 부정어들이나 '대조'의 의미를 갖는 조사, 일부의 부사류가 역접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

역접 관계의 성립은 인식론적 개념이 연결 고리가 될 때 발신자 개인, 혹은 집단의 문화 내에 전제된 담화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한국어 사용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은 부정적인 결속 관계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사용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 On the Opposite Coherence Relations

Kim, Ho-jeong

This paper deals with opposite and negative coherence relations. First, it gives a definition of 'opposite coherence relations', and deals with the meaning of 'opposition' and 'negative'. And it analyzes the purport of opposition and negation. Then it prescribes the units of 'relata' and the forms of relata.

Addressers represent their purport by 'opposite and negative coherence relations. Opposition among relatum can be 'opposite perspective' that means 'perspective shifting'. Negation forms to intend shifting the meaning and perspective clear the focus. Also they imply meanings to be presupposed in the culture of addresser's groups or the individual. The unit of relatum is 'phrase' or 'sentence'. Each of phrase, sentence or its sequences can be relatum. Some of conjunctions and connective endings represent the negative forms. And there are some combinations of an ending and a postposition or postpositions. Also some of negation words, postpositions and adverbs express the opposite coherence relations. These diverse forms represent the principles of using Korean to express negative coherence relations.